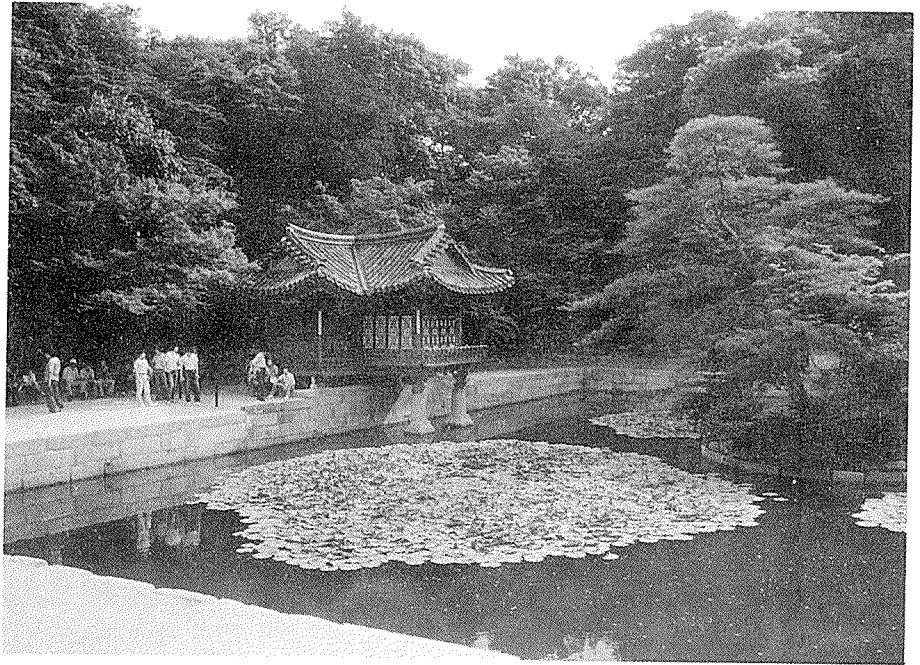


건축과 조경(VI)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3. 고려조(高麗朝)

고대로부터 통일신라 후기의 석조문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문화는 창조의 시기와 융성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으며 고려조(高麗朝)에 와서는 다시 완숙한 경지에 접어들어 세계 문화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문화, 눈부신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팔만대장경, 수없이 많은 불교건축물들을 남기게 되었다. 왕건(王建)이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송악(松嶽)을 국도로 삼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으로 국호를 고려라 하여 개국의(918) 주춧돌을 놓게 되어 34대 공양왕 4년 이성계가 새왕조를 창건(1393)하기까지 475년간에 걸쳐서 되는데 태조 18년(935)에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항복하고 그 다음해 후백제의 견훤이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다시 고려조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정치의 제도가 갖추어지고 북방을 개척하여 구귀족과 토호들을 포섭하고 불교를 보호하면서 5대 경종과 6대 성종조에는 토지제도 관료제도 및 여러가지 통치제도가 확립되어 새로운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11대 문종 때에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완비되었으나 문신들을 위주로한 권세가의 출현으로 토지병용으로 인한 농민층이 몰락되고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천시하는 풍조에 따라 무신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으며 18대 의종(毅宗) 때에는 드디어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 많은 문신들이 피살되고 정권이 무인의 손으로 넘어가 그 후 약30년간 최충현(崔忠獻) 일가(4대)에 의한 무인전단정치가 계속되었다.

23대 고종 18년(1231) 이후부터 몽고군이 거듭 침입하게 되어 조정이 강화로 옮겨가게 되고 한반도 전역이 유린당하게 되었고 최충현의 4대손 璉가 강화에서 주살되어 최씨가 몰락함으로써 元宗이 몽고와 강화하고 개경으로 환도함으로써 다시 왕권(王權)은 회복되었으나 이후 80년간 역대 임금인 원(元)나라의 부마(駙馬)가 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원(元)의 세력이 쇠퇴해가고 명(明)이 점점 커짐에 따라 31대 공민왕은 원(元)의 세력을 몰아내어 국권과 왕권을 회복하였으나 흥건적과 왜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무신의 지위를 높여 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신흥 무신인 이성계와 같은 새로운 세력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고려태조가 왕조를 창건하여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 중국대륙은 5대의 난세로서 고려의 입장에서 구고구려의 영토에 대한 구강회복책(舊疆回復策)을 적극 추진시키기에 유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거듭된 글안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8대 현종(顯宗)은 서희(徐熙)의 외교로 압록강 이동의 땅을 완전히 다시 장악하고 이후 윤관은

여진을 토벌하여 동북면에 9성을 쌓는 등 북방수비를 견고히 하였다. 이후 여진족이 금(金)나라를 세워 송(宋)나라를 압박하는 형세를 취하게 되자 고려는 송·금 두 나라와 정립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국권을 보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원(元)이 일어나 사방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고려를 침략하고 부터는 그 지배와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31대 공민왕때에 이르러 다시 구영토를 회복하여 국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도성(都城)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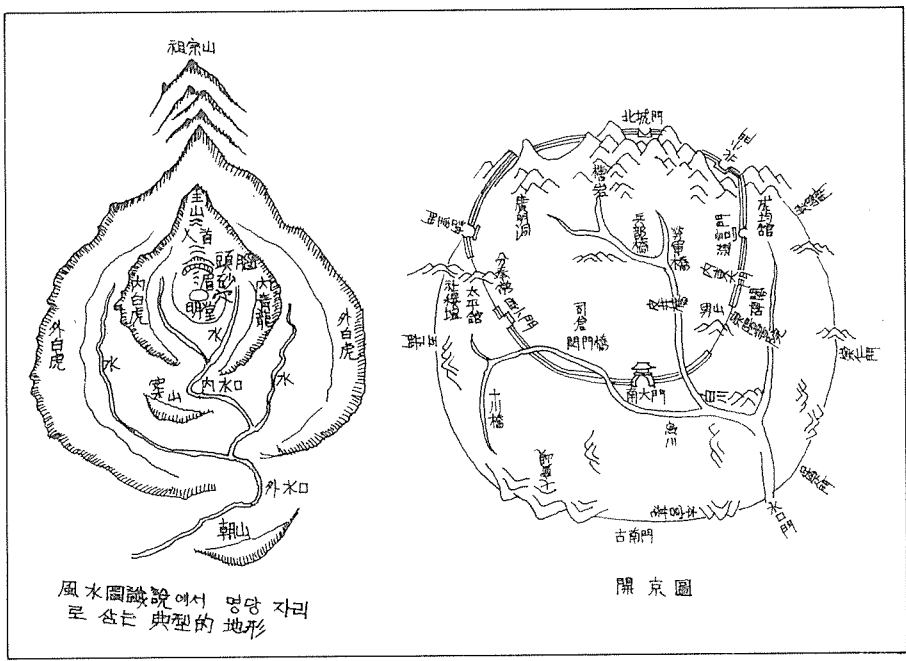
고려태조가 개성에 정도한 것은 신라 말기부터 일기 시작한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2) 태조는 처음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해(919)에 궁궐 조영을 착수하여 주위 2,600간되는 궁성을 축조하였고 궁성 외성은 축조하지 않았으며 5부로 방리(坊里)를 두어 시전(市廛)을 두었다. 그러던 것이 8대 현종 20년(1029)에 글안의 침포가 거듭되면서 외성의 축성을 마쳤으며 나성(羅城)은 모두 토성으로 주위 29,700보(나각(羅閣)이 13,000간 높이 8m 가량의 성 주위에는 대문 4개, 중문 8개, 소문 13개가 있었고 이 외성속에 포함된 관아와 부락은 동, 서, 남, 북 중의 5부와 35방 344리(동)으로 나누어 졌다고 하는데 관아(官衙) 불사(佛寺) 객관(客館)들이 지형의 기복에 따라 알맞게 산재되고 민가들은

십수호식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며 고려사 고종세가 19년(1232)에는 「時昇平既久 京都戶至十萬 金碧相望」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때 京都戶至十萬이면 1호당 5인가족으로 계산해도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였음을 짐작케 한다.

● 고려 궁궐의 정원

고려조의 금원(禁苑)으로서는 궁궐의 동쪽에 동지(東池)를 축조하여 건국 초기에서부터 왕조의 말기까지 이용되었다는 것은 5대 경종 2년(977) 「임금이 東池의 龍船」에서 친히 進士試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10대 정종(靖宗) (1038) 4년 12월 내사동 하성언에 동지에 여러가지의 물새와 짐승을 길렀는데 그 사육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7년조에 누각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11대 문종 10년 9월(1056) 태자가 누각에 주연을 베풀고 수재 최응(秀才 崔應)과 이서(李曙)를 불러서 왕조에 충성하는 시를 짓게 했다고 되어 있으며 31대 공민왕 원년(1352) 만호인당(萬戶印瑄)이 왜적의 배를 사로잡는 시범을 동지에서 보였다고 되어 있는것을 미루어 보면, 동지에는 진기한 새와 동물을 길렀다는 것과 누각이 물가에 지어져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주연의 자리로 쓰여졌으며 무사들을 사열하고 무술 시범과 용두익수(龍頭鷓首)의 누선을

떠올만한 연못과 2, 3채의 누각을 중심으로한 정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유적은 찾을 길이 없다. 11대 문종은 고려조의 유수의 賢王으로서 30여년간의 재위기간을 통하여 주변의 송나라 일본 멀리서 아라비아까지도 선린을 다졌으며 특히 송나라의 문화적 교류는 매우 왕성하였다. 前記의 중국편에 언급하였듯이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건축 조경문화를 남긴 왕조로서 당시 송나라와의 빈번한 문화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건축과 조경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6대 종종과 18대 의종은 고려조에서 가장 정원을 화려하게 꾸민 분으로 그 가운데 제일 두드러진 것이 화원의 설치를 들 수 있는데 예종 8년(1113) 2월 조(條)에 궁의 남서쪽에 화원을 설치하여 신하와 왕의 사치가 극에 달하였고 민가를 헐어서 화원을 조영하여 화려한 담장과 대사를 지었으며 진귀한 화초와 공작 앵무새 등은 송나라 상인으로 부터 구입하여 납폐금이 탕진되고 결국에는 화원 조영이 폐지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화원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창출했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수창궁의 금원(禁苑)은 정원의 주경관으로 못을 파고 석가산(石假山)을 쌓아 폭포를 만들었으며 못가에는 관란정(觀瀾亭)을 지어 상수관어(賞水觀魚)를 즐기고 청어나 종려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은 정자를 나란히 세워 유음(遊飲)의 장소로 삼는 한편 여러가지 진기한 점경물을 그 사이에 나열하고 옥석을 깔아 대를 쌓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송나라의 그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된다. 그의 허다한 문헌에 고려 왕실의 정원에 관한 기록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한결같이 화훼를 중요한 요소로 삼은 화려한 정원이었음을 볼 수 있다. 즐겨 사용되었던 화훼로서 모란, 작약, 석류화, 두견화, 연화, 국화 등 화려한 것을 즐겼다. 또한 이규보(1168~1241)가 남긴 「동국이상국집」에는 당시의 권신이나 귀족들이 즐겨 심던 화훼로서는 위에 적은것 외에 패랭이꽃(石竹花) 원츄리(萱草) 무궁화(槿花) 딱풀(黃蜀葵) 맨드라미(鷄冠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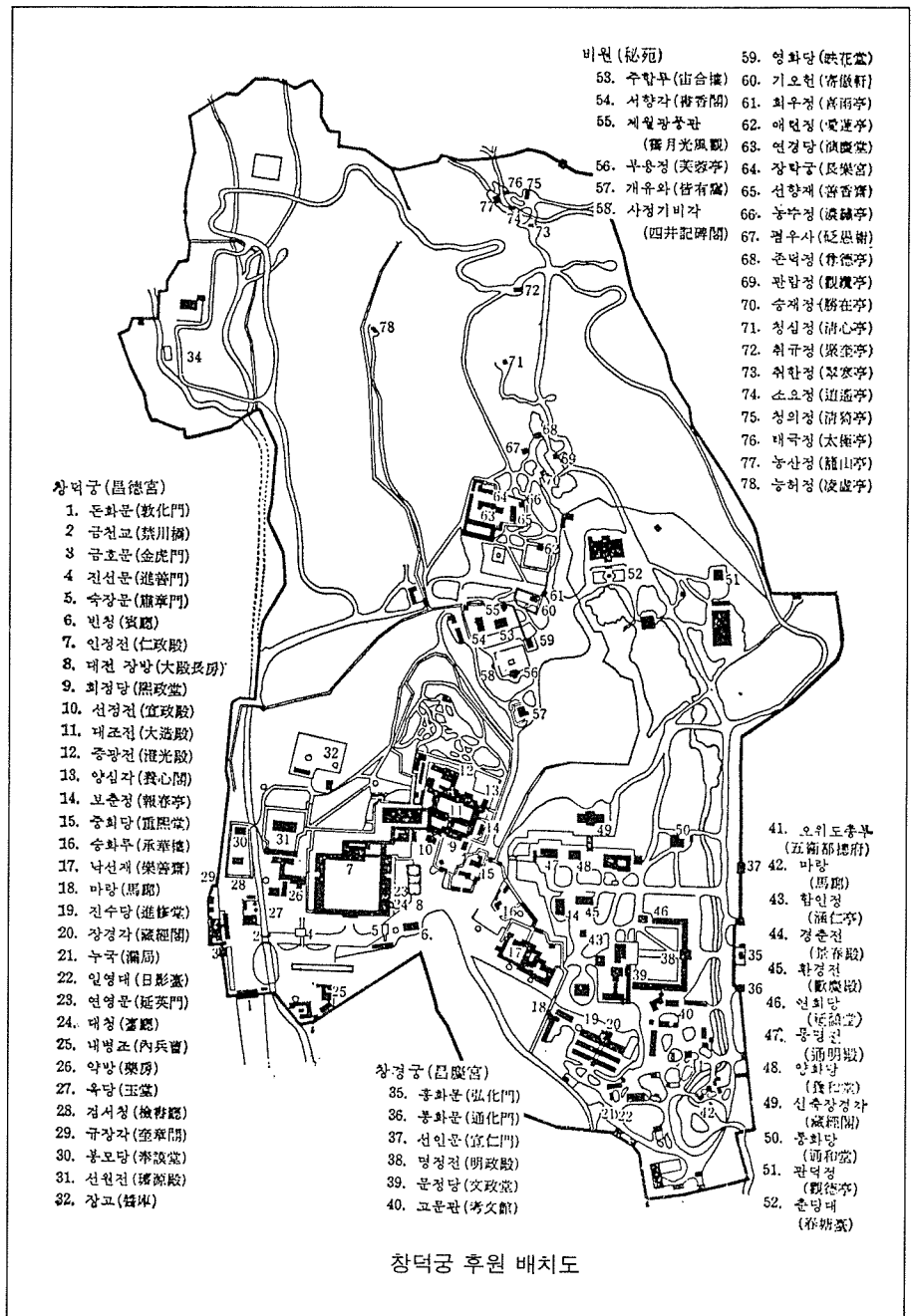
월계꽃(四季花) 배롱나무(紫薇) 아그배(海棠) 옥매(玉梅) 봉선화(鳳翔花) 자두(李花) 목련(木筆花) 곱봉숭아(百葉桃) 그 외에도 金錢花, 地棠, 瑞祥花, 醒醉草, 御留花 등 현재로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조차 모를 이름들이 있고 분식 식물로서는 동백(冬柏) 협죽도(夾竹桃) 석창포(石菖蒲) 대나무 따위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사원(寺院)과 사제(私第)의 정원
고려조의 역대 왕조들은 불교를 국교로 삼아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사를 자주 벌이기는 했으나 사찰의 규모나 정원의 꾸밈새를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기록은 별로 찾을 수 없고 사찰은 불의(佛義) 탐구의 방편 또는 존숭(尊崇)의 강조 수단으로 원래 경승지에 자리를 잡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사찰을 둘러싼 자연 그 자체가 정원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달리 정원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찰의 조경에 관한 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듯이 고려조는 건국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정원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의종 이후 권신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들의 저택과 정원은 궁궐의 그것에 못지않은 거창한 규모와 호화로운 꾸밈새를 가지게 되었다 한다. 특히 최충헌의 사저는 백여인가를 헐어 없앤 넓은 터에 화려하게 축조되었는데 그 규모가 수리에 달하고 왕궁의 금원을 닮았으며 별당은 호화스러운 십자각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호화의 극치를 볼 수 있고 유정동(柳井洞)과 내사동(內社洞)에 또다른 저택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 그 외에 권신 귀족들의 사제(私第)도 짐작케 되는 것이다. 또한 고려조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25대 충렬왕 34년(1308)조에 모든 궁궐의 원원(園苑)을 맡아보는 관서인 내원서(內園署)를 사증서(司證署)의 관할 밑에 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금원의 축조나 개수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공식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제도이며 이조까지 계승되어 중도에서 한때 폐지되기는 했으나 조선조 말엽까지 계속된 바있다.

4. 조선왕조(朝鮮王朝)

1392년 7월 군신이 추대하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국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 신왕도를 건설하고 병제와 고려조의 문란했던 사회의 모든 제도를 쇄신하여 불교 세력을 억압하고 유교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태종 세종대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은 북변의 강역(疆域) 확보에 노력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 군현(郡縣) 및 진(鎭)을 설치하였으며 지방을 8도로 나누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모든 제도와 문물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민족문화의 기초를 견고히 다져 놓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적인 정치기구가 사회를 견고히 굳히는 반면 유교적 관료정치의 모순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확대되어 세칭공신들과 그 자손들이 차지한 정권을 습단(壟斷)하여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였고 정부는 척족(戚族)의 정부가 되어 갔으며 연산군에 이르러서는 사치일락(奢侈逸樂)의 풍이 그 절정에 달하였다. 그로 인하여 새로 관계에 등장한 자들의 시운혁신의 기세는 척족세력에 의하여 억압배제 당하는 바가 되었으며 거듭되는 사화(士禍)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너무나 형식주의에 치우친 유교의 번거로운 예론(禮論)은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질적으로
 싹트게 했으며 사색 당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같은 내부적 분열과 사회
 상태의 혼란은 어처구니 없는 임진,
 정유왜란과 정묘, 병자의 호란 등
 외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하여 국력은 위축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층의 분열은 더욱 격화되어
 정치기반도 문란하여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사회의 피폐상은 21, 22대의
 영조, 정조의 탕평책(蕩平策)과 일부
 실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광구(匡救)할 수는 없었다.
 26대 고종때에 이르러 대원군에 의하여
 외척세도 정치의 폐단이 시정되고
 당쟁의 온상이 되어온 서원을 철폐하는
 등 강력한 정치가 시도되었으나
 경복궁의 재건으로 재정의 문란이
 초래되었고 천주교 탄압과 병인,
 신미의 양요(洋擾)를 겪으면서 대세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대원군은 집권 10년만에 물러나고 민씨
 세도정치가 들어서는 1876년 운양호
 (雲揚号)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타외에
 의한 개국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구미
 제국과 국교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개국과 더불어 일본, 청국, 러시아
 3국 사이에 세력 각축 무대로 화하여
 국내에서는 보수 진보 양태의 대립이
 나타나 임오, 갑신의 변란이 일어나고
 말세기적인 사회파괴속에 동학혁명이
 폭발하였으며 일본은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차례로 배제하고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세력을 침투시켜 끝내는
 1910년 치열한 민족항거 속에서도
 식민지화하여 총독정치를 펴나감으로써
 조선왕조는 사실상 역사의 종말을 맞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의
 조선조에 있어서의 우리의 건축과 조경
 문화는 고려조까지의 중국양식 모방
 시대로 부터 벗어나 우리의 색채가
 농후한 쪽으로 발달해 갔으며 이것은
 유교와 도교의 사상이 사회조류를 크게
 지배함으로써 풍수도참설의 성행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양기(陽基) 즉,
 택지를 잡았기 때문에 지형상의 영향을
 받아 후정(後庭) 즉 뒷뜰을 아름답게
 꾸미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수한
 정원형식의 하나로서 이와같은 구조의
 정원은 궁궐정원은 물론 세도가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된
 것으로서 지금도 도처에서 그 당시의
 면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건축적인 수법이 다양하게 결결여진
 국부(局部)가 자연 그대로의 암석이나
 계류 또는 그밖의 지형, 수림 등과
 서로 어울리면서 이루어지는 정원 즉
 창덕궁(昌德宮)의 후원과 같은 형식의
 정원이 생겨났으며 이것은 중국의 정원
 양식을 완전히 소화 흡수한 우리
 민족적 감정에 매우 적합하도록 창안된
 독특한 것으로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녔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 즉 지형의 생김새가
 태백산맥을 척추로하여 적당히 산재된
 각종산맥을 골간으로 기복이 심한
 지형에 골짜기마다 개천이 있고 개천을
 따라 큰 강을 이루었으며 골짜기 사이
 마다 기름진 옥토가 적당히 배치되어
 있으며 지구의 동북반구에 위치하여
 4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강우량이
 적당하여 농경문화가 정착하기에
 적합하여 개천(開天) 이래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 왔으므로 자연에
 순응하는 민족성이 길러져 왔던 관계로
 우주형성의 원리로 생각한 음양오행의
 사상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진다.
 건축의 양식도 중국의 양식에 비하여
 압도적인 웅장미 보다는 지붕이나
 추녀의 자연스러운 곡선형 자연미가
 우선하였으며 조경의 처리기법도 중국의
 요란한 석가산을 비롯한 수식적 요소
 보다는 일본의 축경 상징주의적 방식과
 달리 택지 자체를 자연속의 가장
 안정된 장소에 잡음으로써 햇빛, 바람,
 습도, 경관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위의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함으로써 부지내의 인위적인 특별한
 수식이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부지의 이용
 형태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에
 양기(陽基)를 정하고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의 형식에 본체가
 정해지면 사랑채 행랑채가 따라서
 배치되고 각종 출입구(대문)와 뒷뜰,
 안마당, 바깥마당 등이 따라서
 정해지며 홍동백서(紅東白西)의 배치에
 따라 매화나무, 대추나무, 살구나무 등
 낙엽수종이 약간 결결여 식재되었고
 향나무 등 상록수는 거의 식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특색은 연못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과거 어느 때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방지(方池)의
 출현인데 음양오행의 사상에 따라
 네모난 생김의 연못 윤곽은 땅 즉,
 음(陰)을 상징하고 못 속의 둥근 섬은
 하늘의 둥근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陽)을 표현하는 것이며 연못 속의
 둥근 섬은 음양의 결합으로 우주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며 유교문화가
 정원축조에 영향을 미친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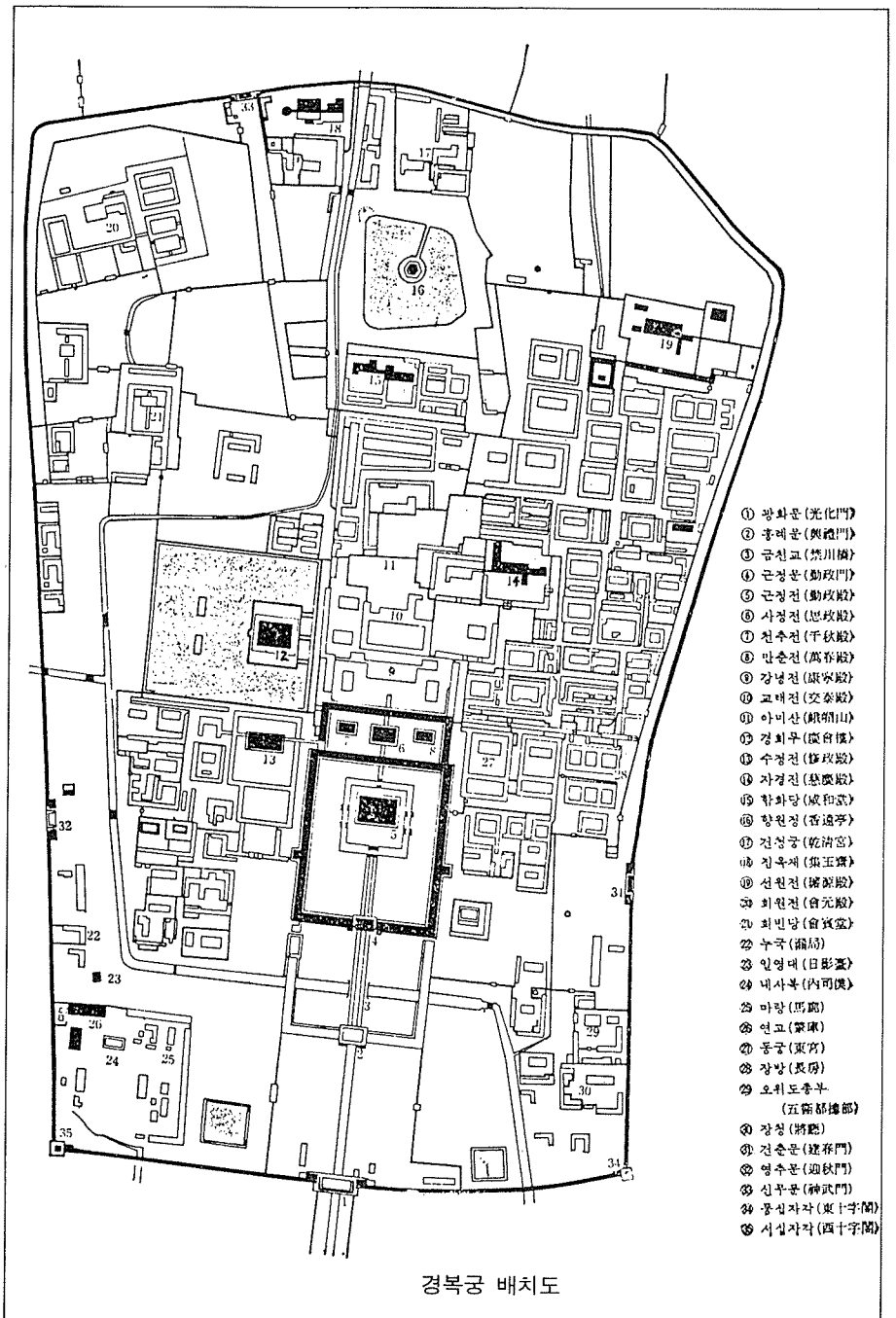
● 이조(李朝)의 궁원(宮苑)

한성(漢城)은 태종의 대단한 노력과
 방대한 국력동원에 의하여 이룩되었으며
 아름다운 주변의 자연지세를 배경으로
 궁궐과 관아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된
 도시로서 중심부의 일부 가로망은
 격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은
 자연지세를 살린 곡선로와 막다른
 골목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도성
 계획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백악 밑 명당자리에 경복궁과
 창덕궁을 배치하고 좌조우사(左祖右社)
 의 원칙에 따라 궁궐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 사직단을 두었다. 동서 주축
 간선도로는 승례문에서 시작되어
 호형(弧形)을 그리면서 종루앞에서
 동서 주축 간선도로와 3교차를
 형성하고 북쪽은 경복궁 앞에서 현재의
 광화문 네거리 까지와 창덕궁 앞에서
 종로3가 까지 주요도로의 기점에는
 경복궁을 비롯하여 창덕궁, 승례문,
 홍인문 등 웅장한 건물들이 노단경
 (路端景: terminal vista)을 형성하였고
 주요간선 도로 좌우에는 연달아
 계속되는 행랑건축이 이채를 이루며
 도성을 둘러싼 성곽과 도성의 중심을
 이루는 각 궁궐건물과 관아건물 및
 사묘(寺廟) 시전(市塵) 등은 당시
 한성의 도시미를 일관성 있고 특징있는
 것으로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복궁은 이조가 한성에 조영한 여러
 궁궐중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함께
 현재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궁궐로서
 태조 3년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었던 것을 고종 7년(1870)
 대원군의 영단으로 재건되었던 것이다.
 경복궁은 뒤 백악과 멀리는
 삼각산을 등지고 좌우에 육조관아가

병립하는대로 광장에 면하는 평지에 조영한 궁궐로서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건물군은 남북 축선위에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었으나 경회루가 앉은 방지(方池)와 향원정이 자리잡은 연지(蓮池) 및 기타 대부분의 건물은 그 주축에서 벗어나 비대칭적 구성으로 배치되었다. 궁궐 주위에는 사괴석(四塊石)으로 쌓은 고장(高牆)으로 둘러싸였으며 궁궐 전면 중앙에는 정문인 광화문이 세워졌고 전면 고장(高牆)의 동서 양각우부(兩角隅部)에는 십자각을 앉힌 성루를 세웠다. 궁궐 동쪽에 건수문 서쪽에 영추문, 북쪽에 신무문을 두었으며 정문인 광화문을 들어서면 장벽(牆壁)으로 둘러싸인 넓은 전정(前庭)이 있고 후면 중앙에 홍예문이 자리잡았으며 그로부터 근정문까지는 홍예문 좌우로부터 시작되는 회랑에 의하여 둘러싸여 그 중앙부를 어구(御溝)가 서에서 동으로 흘러 금천교(일명 영제교)가 차선(軸線) 위에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그 모두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그 자리에 일제에 의하여 축조된 총독부 청사로 쓰던 중앙박물관이 앉아 있다. 근정전 뒤에 자리잡은 사정문을 지나면 사정전과 그 좌우에 놓인 만수전, 천추전의 세 전각(殿閣)이 회랑으로 둘러 싸여 있고 그 뒤에 내전인 강령전과 교태전이 정원을 걸쳐서 자리 잡았고 동변에는 수많은 전당들이 나열되어 있다. 경회루는 정전인 근정전 다음가는 웅장한 건물로서 외국사신의 영접과 조정 군신의 연회장소 또는 문과나 무과를 보는 자리로 사용된 건물로서 사정전 서북쪽에 인접해서 파 놓은 대방지 속 석조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궁궐 뒷편에는 향원정을 중심으로한 연지를 파고 후원을 만들었으며 후원 북쪽에 건청궁과 집요옥제 서쪽에 태원전 등의 건물이 배치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헐리어 지금은 향원지(香遠池)와 집요제(集玉齋)만 남았을 따름이다. 이러한 위치 선정과 건물 배치는 순전히 풍수도참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명당자리를 찾아 궁궐터로 정한 것이다. 주산인 백악을 등진 완경사지를 택해 남북으로 길게 궁장(宮牆)을 둘러 그 속에 궁전 건물들 앞으로 몰아 뒷편에 넓은 후원을 조성해 놓았으며 청룡에 해당하는 물이

삼청동 계곡으로 부터 흘러내리며 (현재는 복개되어 도로로 변했음) 백호에 해당하는 창의문(彰義門)을 향해 길게 뻗는다. 또한 광화문 안에는 좌우에 방지가 각각 하나씩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바로朱雀(朱雀)이며 청와대 언덕이 궁궐 뒷쪽에 알맞게 자리잡고 있다. 이와같은 풍수도참설에 근거를 두어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원 배치 형식인 후원이 생겨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왕조의 궁원에 대한 대체적인 짜임새를 들었는바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경회루를 중심으로한 정원 교태전의

후원 향원지, 창덕궁의 대조전 - 낙선제의 후원 창경궁의 어원 및 기타 궁의 정원 등에 대한 세부를 예를 들자면 한없는 지면이 소요될 것이나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 하나만을 간단히 예를 들고자 한다. 비원은 창덕궁의 후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대에 따라 後園, 禁苑, 北苑, 北園 등 여러가지로 불리었으며 비원이라는 명칭은 「純宗實錄」의 1912년 조 즉, 한일합방 후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되며 이조시대에 보편적으로 쓰인 이름은 후원이다.



- ① 광화문(光化門)
- ② 홍례문(興禮門)
- ③ 금천교(禁川橋)
- ④ 근정문(勤政門)
- ⑤ 근정전(勤政殿)
- ⑥ 사정전(思政殿)
- ⑦ 천추전(千秋殿)
- ⑧ 만수전(萬壽殿)
- ⑨ 강녕전(康寧殿)
- ⑩ 교태전(交泰殿)
- ⑪ 아미산(峨嵋山)
- ⑫ 경회루(慶會樓)
- ⑬ 수정전(修政殿)
- ⑭ 자경전(慈慶殿)
- ⑮ 함화당(咸和堂)
- ⑯ 향원정(香遠亭)
- ⑰ 건청궁(乾淸宮)
- ⑱ 집요제(集玉齋)
- ⑳ 선원전(善源殿)
- ㉑ 회원전(會元殿)
- ㉒ 회빈당(會賓堂)
- ㉓ 누각(福閣)
- ㉔ 인영대(日影臺)
- ㉕ 내사복(內司僕)
- ㉖ 마랑(馬廊)
- ㉗ 연교(梁橋)
- ㉘ 동궁(東宮)
- ㉙ 장방(長房)
- ㉚ 오취도종부(五衛都總部)
- ㉛ 장성(將廳)
- ㉜ 건춘문(建春門)
- ㉝ 영추문(迎秋門)
- ㉞ 신무문(神武門)
- ㉟ 동십자각(東十字閣)
- ㊱ 서십자각(西十字閣)

경복궁 배치도

이 후원은 창덕궁이 창건된 이듬해인 태종 6년 4월에 궁의 동북쪽 구석진 곳에 해운정(解雲亭)을 세움으로써 축조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정원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축조 당시에는 별로 넓지 않았으나 세조 8년(1462) 정월 동장(東牆)을 넓혀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총면적은 95,123평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 후원은 산록과 언덕 및 지소(池沼)와 계류 사이에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자연속에 알맞은 자리를 찾아 방지(方池)와 대사누각(臺榭樓閣)을 배치하여 아담하고 은근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 놓은 정원으로서 숲 속의 오솔길을 따라 거닐면 곳곳에 자연과 인공이 서로 조화를 이룬 한국적 정원 경관이 전개된다. 궁의 동북쪽 후원 입구를 들어서서 언덕길을 넘어서면 나무 사이로 방지와 2층 누각이 눈에 띈다. 이것이 부용지(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이다. 장대석(長臺石)을 쌓아 만든 방지를 중심으로 남쪽 수변(水邊)에 정(丁)자와 아(巫)자형의 복합으로 된 부용정이 양다리를 물 속에 드리우고 있으며 방지 맞은편에는 일주문(一柱門)인 어수문(魚水門)이 남면해서 서 있고 낮은 언덕에 2층 누각인 주합루(宙舍樓)가 앉아 있다. 어수문 그 자체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뒤의 지형에 따라 반복형성된 몇개의 석축단지(石築段地) 위에 심어진 몇가지 침엽수류와 잘 어울려 마치 용궁을 상상하는 몽유경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 뒤의 주합루는 경회루와 꾸밈새가 흡사한 점이 있는 건물로서 후원 속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졌다. 방지 동쪽의 낮은 언덕을 춘당대(春塘臺)라고 하며 그 위에는 친시과거(親試科擧)를 보던 영화당(映花堂)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자리잡아 동남쪽에 위치한 서총대(瑞蔥臺)를 바라보고 있다. 방지 중앙에는 봉래선산(蓬萊仙山)을 상징하는 등근섬이 떠 있고 서쪽 물가에는 숙종이 세웠다는 아담한 사정기비각(四井記碑閣)이 다소곳이 앉아 있다. 춘당대를 왼쪽으로 끼고 북으로 잠시 걸어가면 길 서쪽에 꽤 넓은 평지가 전개된다. 이곳은 애연지(愛蓮池)와 연경당(演慶堂)이 자리잡은 곳이다. 바로 길에 붙어 있는 방지가

애연지요 그 북쪽 물가에 양기등을 물 속에 드리우고 서있는 것이 애연정이고 못 남쪽의 어귀에 있는 하나의 큰 돌 속을 파내고 다듬어 만든 불로문이 서 있다. 불로문을 들어서서 서쪽으로 걸어가면 애연지 옆에 또 하나의 작은 방지가 나타나고 그 너머로 사대부의 저택을 본떠 지어 놓았다는 99간 건물인 연경당이 느티나무 사이로 바라 보인다. 이 작은 방지는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에 주작(朱雀) 즉 남쪽에 오지(汚地)가 있어야 집안이 길하고 부하다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조시대 상류계급의 주택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연경당은 99간 건물의 사랑채 당호로서 편의상 이 건물군 전체를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대문인 장락문(長樂門)을 들어서면 좁은 전정이 있고 우측에 사랑채로 통하는 수인문(修仁門)이 보인다. 수인문가에는 정심수(庭心樹)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문을 들어서면 행랑채에 의해 둘러싸인 안채가 있다. 안채 뒤에는 다시 담장에 의해 가려진 별당이 위치한다. 안채와 사랑채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뜰은 담장에 의해 구획지어져 있고 수목은 가로물아 담장 옆에 두어그루가 심어져 있을 뿐 나머지는 시원스럽게 띄어 놓았고 점경물(占景物) 구실을 하는 석조일영대(石造日影臺)가 놓여 있을 정도이다. 사랑채 동쪽은 지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5단에 이르는 화계(花階)를 만들어 놓았으나 장대석 대신 4괴석을 쓴 간소한 것으로서 몇가지 키 작은 꽃나무를 심어 놓았다. 최상단 화계 위에는 화계의 간소함을 보충하기 위해서인지 석난간(石欄干)을 둘러 놓았고 구석진 곳에 남면해서 우아한 형태의 농수정(濃繡亭)이 세워져 있다. 연경당에서 되돌아 나와 애연지를 옆으로 끼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여 산모퉁이를 돌면 좌측에 한반도의 생김새를 본떴다는 반도지(半島池)가 나타난다. 반도지는 북쪽 물가에 부채꼴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관람정(觀纜亭)이 기태(奇態)를 수중에 비추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너머로 중후한 느낌의 존덕정(尊德亭)이 반월형의 연못가에 서 있다. 그 앞다리 모퉁이에는 일영대(日影臺)가 있으며 그 남쪽에는 독서당 또는 활터로

쓰였다고 하는 굴우사(屹愚榭)의 고색창연한 건물이 바라 보인다. 또한 반도지 남쪽 언덕 위에는 이러한 건물의 앗음새와 못물의 정취를 즐기기 위한 자리로서 승재정(勝在亭)이 수림속에 지어져 있다. 이곳으로 부터 오르막 길을 따라 북으로 한참 올라가면 길이 다시 하향하면서 낮은 분지속에 여러채의 정자들이 사이좋게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곳이 바로 옥류천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제일 구석진 곳에 따로 이은 등근 지붕을 가진 청의정(淸漪亭)이 소형 방지속에 있고 그 동쪽에 차례로 태극정(太極亭), 용산정(籠山亭), 취한정(翠寒亭) 등이 이 분지를 둘러싸듯 놓여 있다. 청의정과 태극정 사이를 흘러내리는 계류는 암석위에 파 놓은 유상곡수(流觴曲水)를 따라 위이암(透巖岩)을 감돌다가 소요정(逍遙亭) 앞에 이르러 폭포로 변한다. 위이암에는 인조가 어필로 옥류천이라는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하며 숙종의 어제시(御製詩) 「飛流三百尺 遙蓉九天來 春是白虹起 鱗成萬壑雷」란 휘호가 새겨져 있다. 이곳으로부터 다시 연경당 옆을 빠지는 샛길을 따라 남쪽으로 되돌아 오면 산마루의 조망이 좋은 곳에 치규정(聚奎亭)을 비롯하여 능허정(凌虛亭), 청심정(淸心亭) 등의 아담한 정자와 약수터가 수림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상이 창덕궁 후원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 후원은 크게 나누어 부용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과 애연지와 연경당을 중심으로한 공간, 반도지를 중심으로한 공간 및 옥류천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이 후원은 태종 6년(1406)에 해운정이 축조되면서 시작되고 그후 제23대 순조에 이르러는 420여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한 부분씩 꾸며 나가는 한편 손을 보지 아니한 곳은 무너져 없어지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일합방 직후에 찍은 반도지 부분의 사진을 보면 물가를 4괴석으로 굳혀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조 시대의 연지축조 수법에는 자연적으로 물가를 굳히는 수법이 없었으며 6.25 사변후 전쟁복구시 후원개수 공사가 진행되었을 당시 자연적으로 바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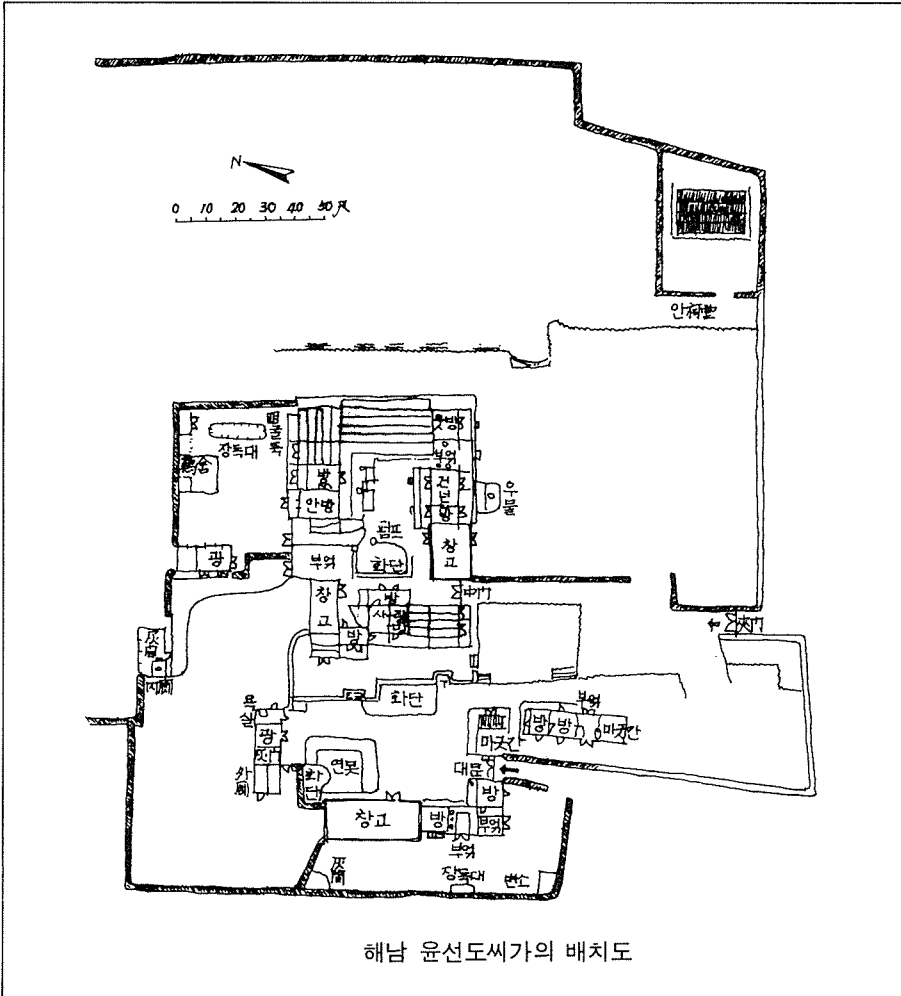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고적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후원 속에 탄탄대로가 개설되고 하목(下木)이 모조리 베어 없어지는 등 근자에 와서 모진 수난을 겪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상 문헌상이 아니고 실제로 남은 단 하나뿐인 궁궐의 후원인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역사적 고증을 충분히 거쳐 옛모습을 되찾아 정성들여 가꾸므로써 우리의 얼과 맥을 다시 이어 우리의 정원문화재(庭園文化財)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문화재 관리국이 추진하는 고궁 복원은 뜻 깊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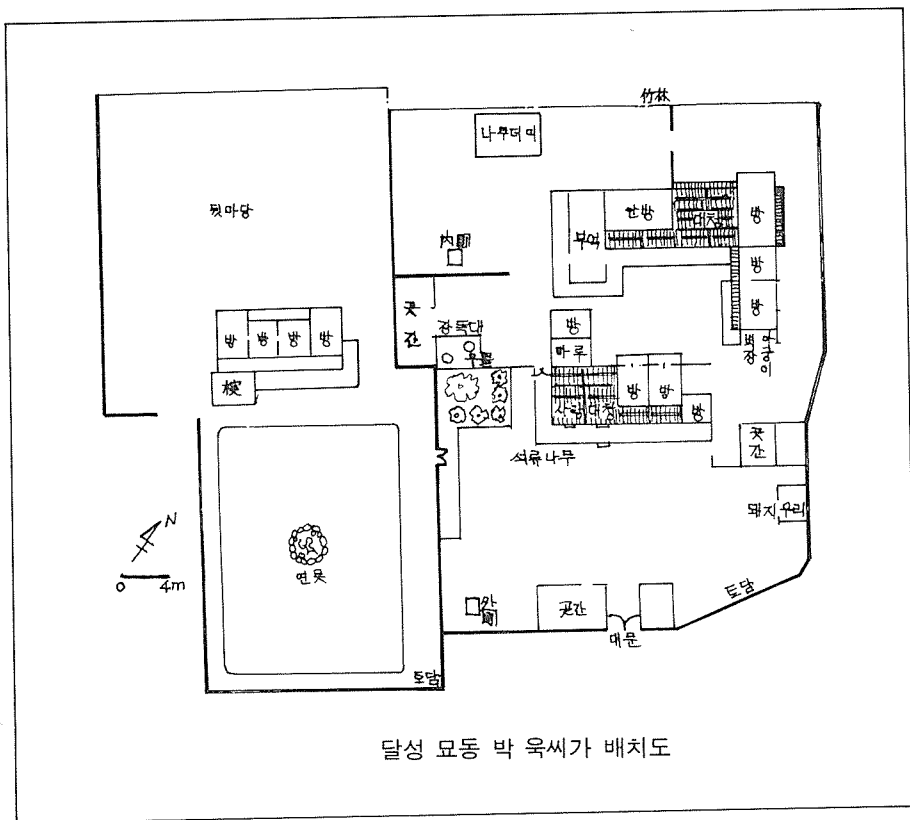
●민간의 정원

① 사대부(士大夫) 집 정원의 기본형 이조 초기의 민간의 정원양식은 극히 간결한 꾸밈새로서 뜰안에 못을 파고 연꽃을 가꾸어 그것을 감상하기 위한 자리로서 간소한 정자를 꾸미는 것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곳에 심어진 식물로서는 저숙(苜蓿) 산약(山藥) 산계(山薊) 황정(黃精) 당귀(當歸) 자강(생강, 子薑) 흰초(萱草: 원추리) 홍교(紅蓼) 등 거의가 산야에 자생하는 약재로서 쓸 수 있는 것들이며 매화, 살구, 대추나무 등 낙엽수가 담장 기슭에 심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생김새는 근세에 까지 계승되어 내려 왔으며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의 바깥 뜰이나 강릉의 선교장(순조 16년(1816)에 축조되었다 함)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예로부터 「濕側人病偏死」라 하여 사람이 사는 곳에 습기차는 것을 두려워 하여 집을 지으면 우선 배수에 대해 신경을 썼는데 습지를 처리하고 배수를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연못인데 연못의 설치는 수석(水石)과 정사(亭榭)의 축조와 나무 그루의 배치를 할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되어 그것으로부터 간결하나마 하나의 정원수법이 발생하여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세종조에 진사 신희창이라는 자는 그의 저택과 정원이 분에 넘쳐 궁궐을 방불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죄를 입어 유형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별야(別墅) 정원으로서의 유교사상이 심화되어 은일사상(隱逸思想)이 농후해져 풍경가절(風景佳絕)한

전원이나 산 속 깊숙한 곳에 별야를 지어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생겨나서 그에 어울리는 정원양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전남 담양군 남면에 남아있는 양산포(梁山浦)의 소쇄원(瀟灑園)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소쇄원은 자연 계류를 중심으로 한 사면(斜面) 공간의 일부를 화계식(花階式)으로 다듬어 정형식 요소를 가미한 별야정원으로서 증중조에 축조되었다고 하며 제월당(霽月堂)과 광풍각(光風閣) 및 애양단(愛陽壇)을 중심으로 하여 석가산 수대(水碓, 물방아) 항규유수구(垣竅流水口) 오곡문 위의 단상와오양(段狀瓦茸牆) 그리고 수대를 가운데 둔 상하 두개의 소형방지 대봉대(待鳳臺) 위의 원정 등이 주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광풍각 후면 축장 위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 도도(桃塢)라 하고 애양단 계면에 누석을 축대하여 대상에 소정과 함께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대봉대라 명명한 것 따위는 은자의 도선사상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도연명(陶淵明)의

도원경(桃源境)을 회구하는 마음이 결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조 당시에 심어진 식물로는 김인후의 소쇄원 사십팔영, 소쇄원 사실 등의 기록문에 보면 松, 竹, 梅, 丹, 机(단풍), 杏(은행), 桃, 桐(오동나무), 柳, 紫薇(배롱나무), 梔子(비자), 철쭉, 藤(등나무), 槐(느티나무)의 15종 수목과 菖蒲(창포), 蓴芽, 菊, 芙蓉, 芭, 蕪(파초) 등의 초본식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다. 그 밖에 전남지방에는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꾸며 즐기던 것이 남아 있는데 모두가 방지를 중심으로한 정원으로서 역시 별야 정원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겠다. (茶山庭園은 純祖元年 幸西邪獄時) 유배지인 전남 강진에 축조한 것으로서 초당(草堂)을 중심으로 하여 방지와 정석(丁石) 및 몇계단의 화계가 놓여 있는 극히 간소한 정원이었고 윤고산(尹孤山)의 부용동(芙蓉洞) 정원은 병자호란 후 그가 12년 동안 은둔하였던 곳으로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달성 모동 박 옥씨가 배치도

북쪽에 낙서제(樂書齋)를 지어 기거하던 자리로서 동구밖 계류가 흐르는 곳에 변칙적인 형태의 방지를 두개 축조하고 물가에 세연정(洗然亭)을 세워 마주보는 곳에 동대와 서대를 쌓았으며 방지속에 방지와 옥수암(玉簾岩)을 얹혀 경관을 돋보이게 하고 방주에는 소나무를 심어 가꾸었다고 한다. 큰 방지에서는 뱃놀이도 하고 판석을 이어간 터널식 수로를 겸한 다리는 연못으로 물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특수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이다.

한편 일반민가의 꾸밈새는 엄격한 유교 윤리의 가르침을 받아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던 관계로 여성이 이용했던 부분과 남성이 사용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어 안채의 뒤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 격리되어 자그마한 동산 또는 돈대(墩臺)나 화계로서 뒤뜰을 꾸며 놓고 있으며 이곳에 동산이나 화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풍수도참설에 의해 택지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연 지형상 언덕이 있게 마련이었다. 이곳에 꽃나무가 심어지고 여유있는 집안에서는 괴석(怪石)이나 세심석(洗心石)과 같은 점경물(占景物)도 놓인다. 화계도 호화로운 것은 담황색 돌과 검붉은 돌을 생긴 모습에 따라 어긋매겨 놓아서 가요문(哥窰紋)을 그려냈다고 하며 화계 뒷면이 담장일 때에는 화문장(花紋牆)으로 꾸며 놓기도 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자리잡은 안뜰 역시 외간 남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남성 내객을 위한 정원은 사랑채 앞에 마련된 앞뜰을 비롯하여 앞뜰의 연장인 샘터와 바깥뜰의 동산으로 이루어지며 그 꾸밈새는 안뜰과 앞뜰을 시원하게 남겨둔 채 조경적 수법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정심수(庭心樹)도 뜰 한가운데 심으면 집이 가난해진다는 습관에 따라 중문과 대문 사이에 몰아 낙엽수종 몇그루를 심는다. 이러한 꾸밈새의 모두가 풍수도참설에 따라갔기 때문에 택지안에 나무를 심을 때도 홍동백서(紅東白西)

의 이론이 적용되었으며 산림경제에는 아래와 같이 허한 곳에 나무를 심어 보태주는 방법을 실고 있다. 「모름지기宅에는 왼쪽에 流水, 오른쪽에 長道가 無하고 앞은 汚地, 뒤는 구렁이면 반드시 東에 桃, 柳를 심고 南에는 梅棗(매화와 대추), 西에는 石榴(석류), 北에는 李(오얏)과 杏(은행)을 심어도 可하니 靑龍, 白虎, 朱雀, 玄武 代하니라 하였다.」 바깥은 역시 번듯하고 시원스러운 것을 좋아했으며 농가에서는 이 자리를 타작마당 등으로 쓰기도 했다. 이러한 풍조는 그 발생 원인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생활방식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을 파고 들어 정착된 자연 발생적인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조경문화의 특이한 점으로는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나 누각을 짓고 자연 속에 시와 음악을 즐긴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한양의 한강변에 수없이 많았던 권문세가 들의 정자와 각지방의 관찰사나 부윤, 목사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평양의 부벽루, 연광정, 을밀대의 사허정, 전주의 한벽루, 남원의 광한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축석루, 수원의 방화수유정, 해주의 사미정과 부용당, 영변의 석운정과 부수구문루, 만포진의 세검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수풀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관이 좋은 곳에 휴양과 도락을 위한 삼림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삼는 것과 같은 하나의 조경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이와같은 정자나 누각은 권력층이나 세도가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더라도 유럽의 삼림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최근세 또는 현세기초에 비롯되었다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이미 수백년전에 이와같은 시설이 도처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사상 특필할만한 것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

1986년 11월호 38쪽 신임임원 취임인사 중 조춘원이사님의 글중 약력소개 부분의 전라북도 지부장 역임을 전라남도 지부장으로 바로잡으며, 55쪽의 '86회원작품수상자 수상소감 중 조성룡 회원란의 반포로우하우스를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우남용 회원란의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반포로우하우스로 바로 잡습니다. 동시에 70쪽의 신인 및 학생작품전 심사경의 중 6. 심사위원란의 신인부문을 학생부문으로, 학생부문을 신인부문으로 바로 잡습니다.